



닭을 연구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천직인 바에는 닭이란 동물에 대한 우리의 정서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 이런 저런 기록들을 더듬어 보았다. 우리나라는 본디 농경을 통해 삶을 이어온 민족이었고 그러다보니 현대의 농업과학기술서라 할 수 있는 농서(農書)의 발간도 적지 않았다. 얼마 전 조선 시대 서호수(徐浩修)선생이 편찬한 종합농서인 해동농서(海東農書) 국역본을 살펴본 적이 있다. 서호수 선생은 조선 정조(正祖)때의 문신이다. 그의 부친 서명응은 고사신서(攷事新書),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이란 종합농서를 편찬했고, 그의 아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圀經濟志)란 농서를 편찬했으니 3대에 걸친 농학가문의 사람이다. 여기에서도 닭에 대한 거론은 미미하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닭에 대한 정서는 가축이라기보다는 제례 혹은 신비의 차원이 먼저였다는 생각이 든다. 전설과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는 흔적에서 느낀 사실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자. 이 책은 고려시대 국왕 인종의 명을 받은 김부식(金富軾)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이 책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을 전한다. 또 경주 김씨의 시조에 대한 계림(鷄林) 이야기도 소개한다.

경주 계림(鷄林)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에 위치한 숲으로 시림(始林)이라



서 옥 석 과장 /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고도 불린다. 신라 탈해왕 때 호공이라는 사람이 이 숲속의 나무가지에 황금계가 걸려 있고, 그 옆에서 흰 닭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탈해왕에게 이 일을 말하자 왕이 친히 행차하여 금계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서 잘생긴 사내 아이가 일어나더라. 왕은 매우 기뻐했고 하늘이 내린 아이로서 태자로 삼았으며, 금계에서 나왔다 하여 성은 김이요 이름을 알지라 정했다. 그리고 닭의 알람을 통해 태자를 얻게 된 장소인 숲의 이름을 원래의 시림에서 계림이라 고쳐 부르게 했다는 것이다.

출생의 저 건너편 쪽이 되는 무덤에서도 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고구려 무용총(舞踊塚) 천장벽화의 주작도(朱雀圖)는 긴 꼬리를 가진 닭이다. 우리나라의 긴꼬리 닭에 관해서는 '삼국지위지동이전 한전(三國志魏志東夷傳 韓傳)'에도 기술되어 있다. 중국정사의 하나인 삼국지(三國志)는 위서가 서른권, 촉서가 열다섯권, 오서가 스무권으로 되어 있는데 위서 중 하나인 위지동이전은 고대 동방 여러 나라에 관해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길 '출세미계기미장오척여(出細美鷄基尾長五尺餘)' 즉, '진기하고 아름다운 꼬리가 긴 닭이 있는데 그 꼬리의 길이는 다섯 척을 넘는다' 라는 것이다. 꼬리가 1.5미터나 되는 아름다운 닭이라니, 보고 싶다.

1973년 신라시대의 무덤인 경주 천마총에서 계란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서기 340년의 것이라 한다.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렇다. 무덤을 열어보니 수장목관 가운데 동반부에 위치한 3개 토기 중 중간 위치인 장군형 토기 속의 용기에서 완전한 형태의 계란 2개와 계

란 4개 분량의 계란껍질이 있었고 그 외 수장목관내에도 파손된 계란이 있었다.

계귀(鷄貴)라는 단어는 고대 인도인들이 고구려를 칭하는 국명이다. 닭의 깃을 머리에 꽂고 말과 활로 무장하고 중원 대륙을 아우르던 고구려인들의 호연지기와 굳센 기상을 표현한 단어이다. 당(唐)나라의 승려 의정(義淨)의 여행기인 '남해기귀내법전(南海奇歸內法傳)'에서 나온 설명인데, 범어에서 구구타는 계(鷄), 에스바라는 귀(貴)를 뜻한다. 즉 고구려의 인도식 명칭은 '쿠쿠테스바라(Kukutesvara)' 이고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니 계귀(鷄貴)가 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닭은 시작의 상징이다. 소개한 탄생설화가 그렇거니와 시인 이육사는 '광야'란 시에서 태초의 이미지를 닭 우는 소리로 드러냈다. 무덤에 등장한 닭이라 할지라도 그것 역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계란에 비유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닭은 예를 상징한다. 혼례를 올릴 때 닭을 예상(禮床)에 올리는 것이 우리의 오랜 풍습이다. 예식을 마치고 시댁 부모와 상면하는 폐백예물로 빠지지 않는 것도 닭이다.

닭에 관한 우리의 정서는 오덕(五德)론으로 귀결된다. 머리에 뿔이 있으니 이는 문(文)을 상징하고, 힘찬 발과 날개가 있으니 무(武)이며, 적과 싸울 때는 그야말로 죽기로서 대하니 용(勇)이다. 먹이가 있으면 탐식하지 않고 벗과 자식을 불러 모으니 인(仁)을 간직한 것이며 거르지 않고 시간을 알려주니 이는 신(信)이 있는 행동이라 하였다. 누가 뭐래도 닭은 진정한 길조이다. 

